



KTC 수출거점 특화섬유정보

Korea Textile Center

제332호

아래 정보는 파리의 정보거점인 양혜진 사장이 정리한
유럽의 섬유시장 동향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섬유·패션시장 동향

1. 프랑스 섬유 산업: 2014년, 수출로 다시 상승 기류

2014년 프랑스의 섬유 경기는 수출의 호조로 상승했다. 2014년 프랑스 섬유 산업에서 전체 수익은 3%가 상승했으며 생산은 1% 그리고 수출은 4%가 증가하였다. 2014년 전체 수익 128억 유로에서 81억 유로가 수출로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이런 결과는 유럽 이외의 국가들로 수출이 증가하여 나타난 것으로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의 순위이다. 2014년에 특히 여성 란제리가 총 매출액 7억8천만 유로(2013년 7억9천9백만 유로)로 4.7% 하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의 경기가 좋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성용 속옷 산업 역시 하락하였는데 집계된 총 수익은 1억6천만 유로(2013년 1억6천8백만 유로)로 프랑스 자체 소비의 하락(4.9%)이 그 주요 이유이며 수출은 4.3% 줄어들었다. 계속적인 프랑스의 경기 침체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란제리 수출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생활의 변화 즉 여성의 바지 착용이 일반화 되면서 스타킹 소비가 줄고 일반 여성 대형 브랜드 체인에서 저가의 란제리를 판매하는 다른 구조적인 이유들도 있었다.

2. 프랑스 장인 기술 협회(Savoir-faire): 프랑스 섬유 전문가들의 만남

지난 4월 21에서 22일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장인 기술 협회(Savoir-faire)와 프랑스 섬유 제조업자들이 함께 교류하는 행사를 가

졌다. 가죽 제조 전문가 Bouton Renaud, 대마 직조 기술 전문가 Emmanuel Lang, 판테지 트워드 전문가인 Jules Tournier, 린넨 제조 전문가인 Lemaitre-Demeestere 등이 참석했다. 또한 ‘피레네(Pyrenees)섬유’로 대표되는 유명한 피레네 산맥의 직물과 1950년대 편직 전문가 Néolice, 그리고 1870년 이래로 내려오고 있는 프랑스 리옹 지역의 Sfate & Combier가 소개되었다.

이번 행사에 희귀하고 독창적인 프랑스 원단들의 정보가 담겨있는 역사 화보집을 제시하였는데 이 역사 화보집은 기성복, 꾸뛰르 그리고 패션 악세서리 Collection을 위해 기술적이고 창의적이며 가치 창출을 위한 성공 수단이 되며, 창작과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브랜드 아트디렉터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도 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프랑스 장인 기술협회 측은 강조한다.

3. Lectra Fashion PLM 런칭

프랑스 산업장비 전문회사인 Lectra(렉트라)는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경제학 용어. 상품의 수명을 말하며, 신제품이 시장에 도입, 보급되고 포화 상태가 되면서 대체품인 신제품의 등장으로 시장에서 소멸되는 기간을 말한다) 패션을 위한 Lectra Fashion PLM을 런칭하였다.

이 Collection의 기획과 생산 라인은 패션 회사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Collection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제일모직과 프랑스 속옷 전문 브랜드 DBA Apparel과의 Partnership으로 개발되었다.

Lectra Fashion PLM과의 Collection 기획으로 관련 회사들은 효과적으로 상품 제안을 하는데 필요한 다이나믹한 재정적 비전을 정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Lectra Fashion PLM의 일정 관리를 관리자들이 하고 단계별로 지불 기한을 지키게 해주며 개발의 주기를 영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Lectra는 2014년 2억1,1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으며, 현재 1,5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럭셔리 그룹인 Vuitton, Hermès 뿐만 아니라 H&M과 같은 Fast Fashion Brand도 함께 기획하고 있다.